

#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

형 태 근 / 정보통신부 부이사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수석전문위원

## 인터넷 시대와 벤처기업

최근 세계와 국내에서 인터넷이용이 급증하며 무한한 사이버 공간과 24시간을 빛의 속도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모험기업이 골드러시를 이루는 등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콘텐츠의 유기적 결합으로 인터넷 비즈니스의 팽창은 벤처기업가, 투자자 모두에게 무한한기회의 땅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도 벤처기업은 있었다.

그러나 중후 장대한 산업구조 속에서 중소 벤처기업은 대기업과 연계된 일정한 역할만을 부여받아 생존해가는 형태였다.

그러나 디지털과 인터넷 혁명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어가는 지금, 인터넷 관련 벤처기업이 경제발전과 국부를 결정짓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고수익을 지향하는 인터넷비즈니스의 성공은 아이디어의 참신성과 빛의 속도에 의한 실시간 의사결정, 그리고 이를 시장에 접목하여 마케팅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실리콘 밸리의 정보산업을 이끄는 30~40대의 스타 벤처기업가와 일본의 손정의와 같은 인터넷기업가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짧은 시간에 거부가 되었다. 이들은 누구보다 먼저 시작하여 시장수요를 개척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남달리 빨랐다. 그리고 영업에서 끝없이 승부를 찾아 도전하는 벤처정신으로 정보통신산업계의 제왕이 된 것이다.

## 벤처기업의 열풍, 그 허와 실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솟고, 우리나라의 코스닥도 뜨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의 급성장을 두고 버블논쟁이 한창이다. 그도 그럴 것이, 97년 문을 연 코스닥 시장이 불과 3년만에 상장된 기업수가 487개, 총 시장가치가 100조원을 넘고, 일일 거래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등, 단기 급성장이 일반의 예상을 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가 나름대로의 기준과 잣대를 가진다. 완전경쟁의 정보가 퍼지고, 공유되는 주식시장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시세에 버블이 끼일 수 있다.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에까지 벤처란 이름이 들어가면 가격이 높아도 잘 팔려나가는 현상은 사회전반에 퍼진 거품의 단편을 보여준다. 그러나 버블이 있던 없든 인과가 형성되는 고리가 분명한 이상, 실질적인 변화의 동인을 간과할 수가 없다.

지난 97년 이후 IMF를 거치며 2500개가 넘는 정보통신분야의 벤처기업군이 생겨나고, 코스닥 시장내에서도 주로 인터넷 사업을 위주로 하는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여타분야의 기업의 주가상승률을 훨씬 초과한다는 것은 인터넷의 확산이 벤처열풍의 진원임을 밝혀준다.

인터넷기업은 현재 수익을 잘 내는 회사가 아니다. 매출규모가 대단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인터넷은 새로운 땅이기 때문이다. 산업화 초기, 땅의 가치를 미리 본 부동산 투자자들은 개발지구를 선점하여 수천배의 시세차익을 얻었

던 것처럼 사이버 공간의 경제가치를 남보다 먼저 발견하여, 여기에 깃대를 꽂고 자기 땅임을 선언하여 개간하고, 씨뿌리는 인터넷 사업가의 혁신적 기업정신이 시장에서 평가 받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불과 4~5년 전만 해도 인터넷은 생소한 용어였다. IMF위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가 1000만명을 넘게 되리라는 것을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장 잠재력은 무한하다.

코스닥의 급격한 팽창과 이로 인한 버블논쟁은 과거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 처럼 새로운 벤처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하나의 진통으로 보아야 한다.

### 정보통신산업과 벤처기업의 역할

미국은 정보통신부문의 활성화로 92~98기간 중 1800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퇴출 인력을 흡수하였다. 97년까지 IT산업에서 350만개 직종을 창출하고, 7.7%의 고용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2006년까지 미국 근로자의 절반이 정보통신관련 산업에 종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정보통신산업은 99년 생산은 103.2조원, 수출은 399억US\$로 전체 수출의 28%를 점하며 무역흑자만도 145억US\$로 전체무역 흑자의 60%를 차지한다. 또한 정보화를 뒷받침하여 기존산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출 인력을 신산업과 새 업종을 창출하여 흡수함으로써 지식 정보사회에 맞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벤처기업은 정보통신 산업발전에 필

요한 자양분을 나르는 모세혈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활용을 촉진하는 정보제공(IP), 사이버 공간을 창출하는 인터넷, S/W, 콘텐츠 부문이 새로운 업종으로 급부상하여 정보통신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존산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 중소기업은 전체 정보통신기업 10,835개 중 98%가 넘는 10657개를 차지한다.

### 정보통신 중소기업 육성방안

벤처기업은 「높은위험, 높은수익」의 모험정신을 바탕으로 민간자율의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창업, 성장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벤처기업이 성장해나가는 데 필요한 기반환경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시설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자연적으로 모여든 집적지역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고가장비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산업집적과 네트워크화를 가속화 한다. 이를 통해 정보, 기술, 인력교류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간네트워크의 강화와 기술개발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

성장가능성 있는 분야와 기업을 선별 집중지원 한다. 성장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분야별 전문가의 종합적 평가를 기초로 지원기업을 선별하고, 선별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기술전문가를 통한 애로해결, 투자알선,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집중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지원도 효과적으로 해나간다. 민간의 평가 기능을 활용하여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운용하고 출



연 용자 위주의 지원체제를 벤처캐피탈을 활용한 투자 위주로 전환한다.

정부가 해나가야 할 일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 정보 인프라 확충

무엇보다도 정보 통신 벤처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보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실시간에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다.

가입자 망의 경우 광케이블, xDSL, CATV, 무선 위성망 기술을 총체적으로 연계하므로써 1Mbps급 이상의 고속가입자망 설치를 늘려 현재 80만 가구 수준의 고속인터넷 이용을 금년 말까지 20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벤처기업 밀집지역, 전국 400여개 산업단지 등 초고속통신 수요가 큰 지역의 인터넷 환경을 유형별 특성에 맞게 조성한다.

백본망의 경우 2004년까지 수백 Gbps급 이상의 차세대 인터넷을 개발 보급하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연결하는 인터넷 회선을 4배(1.2 Gbps5Gbps)로 확충하고 유럽의 연구망과 국내 연구시 협망을 연계하여 유럽 아시아 초고속정보통신 연구망으로 발전시킨다.

### 정보통신 전문 인력양성

정보통신 벤처기업은 사람이 가진 능력과 기술력이 성패를 좌우한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실천력을 가진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벤처열풍 속에 사람 구하기가 무척 어렵다. 21

만명의 정보통신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9년 말 현재 이 분야에 108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매년 수요가 6.5%씩 늘어 2004년에는 150만명을 넘게 된다. 그러나 대학 등 정규 교육과정을 거쳐 공급되는 인력은 수요 증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보통신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금년 795억원을 투입해 웹 디자인, 정보검색 등 새로운 직종과 관련된 학과와 전공 신설을 지원한다. 이 중 대학들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350억원을 투자 하게 된다. 특히, 교육전반의 혁신으로 창의적 인재가 대량 배출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벤처기업가양성과 핵심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해 테헤란밸리에 IT 대학원을 여는 등,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을 늘려나간다.

< 표 1 > 5년 후 정보통신 분야별 예상 부족 인력 (단위: 만명)

구 분	석·박사급	학사급	전문대 이하
소프트웨어	1.2	6.5	
웹서비스 콘텐츠	1	5.7	
하드웨어 부품	0.1	0.7	4.2
통신	0.1	0.1	1.3

###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지원

정보통신벤처창업 경진대회를 열어, 아이디어는 있으나 창업이 어려운 대학생 등을 발굴하여 창업을 지원한다. 인터넷 응용 기술, 멀티미디어콘텐츠, 네트워크 S/W, 기기 부품 등을 대상으로 우수한 벤처창업 제안을 골라 기술개발과 시제품제작, 특허출원, 벤처캐피탈 투자알선을 돕는다.

또한 창업마인드와 창업성공에 필요한 핵심자질을 갖추도록 창업기업가와 벤처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부와 대학이 협력하여 대학의 전문인력과



우수창업인력이 보유한 정보통신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대학 정보통신 창업지원 센터는 현재 25개 대학에서 운영하여 292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 간다.

또한, S/W 창업촉진을 위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 운영중인 S/W지원센터와 S/W 진흥구역은 전국 24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보 통신 발전의 핵심 기반이며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로 부각되고 있는 ASIC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ASIC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창업공간 제공과 고가의 장비를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ASIC 타운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문형 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한다. 지역대학, 연구기관과 연계한 창업지원 및 병역특례제도, 지역의 창업자문 회사를 활용하여 벤처 창업붐을 지방으로 확산한다.

인터넷 데이터센터(IDC)를 중심으로 전국의 인터넷 기업을 집적화하여 굴뚝없는 21세기형 디지털 공단을 조성하며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 및 솔루션 등을 중앙 데이터 센터에서 광역 통신망을 통해 관련 기업에게 제공하는 기업 지원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기능을 강화한다.

**투자 등 담보 없는 자금 지원 확충**

정보통신분야의 창업 중소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조합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결성 운용하여 투자위

주의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99년 말 현재 1703억원 규모의 조합을 결성 운용중이며 금년에 1500억원 (정부 500억원, 민간 100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조합을 늘린다.

투자조합은 정보통신분야의 비등록, 비상장 중소기업에 전액투자하고, 창업초기단계 유망중소기업에 총 투자액의 30%이상을 투자하며, 경영과 마케팅자문 등 투자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영세한 S/W업체를 위해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지원 사업도 계속 확대한다. 99년 현재 456개사가 가입, 기본 재산 383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금년에 이를 700개사, 523억원으로 확충한다.

**정보통신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지원**

정보통신분야의 핵심기반 기술개발과 새로운 아이디어나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1970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출연지원 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선도기반기술개발을 위해 금년에 1570억원을 지원한다.

개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나,

< 표2 > 정보통신기술개발 지원현황(1996~2000) (단위 : 억원)

구 분		년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출 연 사 업	기술개발	1,748	2,366	2,303	1,900	1,970
	인력양성	65	594	1,010	830	795
	표준화	88	107	260	210	180
	연구기반조성	309	421	430	414	460
	출연소계	2,210	348	4,003	3,354	3,300
용자사업		2,350	2,850	4,365	4,300	3,700
합계		4,560	6,338	8,368	7,654	7,000



특허관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지적재산권으로서 제품화 되지 않은 기술을 가진 경우에 신청가능한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으로, 금년에 100억원 규모로 지원하게 된다. 정보통신 중소 벤처기업의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 내 3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과제당 소요 연구개발비의 50% 범위에서 출연 지원한다.

정보통신중소기업의 핵심기술개발에 대해 기술개발자금을 최저6%의 장기저리로 금년 내 3700억원을 융자 지원하며, 이와는 별도로 멀티미디어 관련 창업 중소기업에 시설과 운영자금을 11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보통신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설비 구입과 시설개체 자금으로 금년 4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 마케팅, 해외진출 등 경영지원 강화

벤처기업이 겪고있는 마케팅과 해외진출의 애로를 돕기 위해 정보통신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게 된다. 경영, 회계, 법률, 마케팅 등 전문가로 경영지원단을 구성하여 정보통신분야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전문적 경영자문을 해준다. 정보통신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의 해외 전시회 출품과 홍보를 지원하여 해외진출과 시장개척을 촉진한다.

실리콘밸리에 오는 4월중에 해외정보통신기술협력센터(i-park)를 설립하여 해외진출을 원하는 정보통신 중소기업을 종합지원하게 된다. 현지의 교포2세, 유학생 등의 창업을 돕고 이들과, 국내 유망 벤처기업을 연계하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중국, 유럽 등으로 확산한다. S/W유통 전문회사와 우체국, 콘텐츠 전문매장, 창업지원센터 등을 연계하여 S/W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 한다.

### 맺음말

벤처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정부지원과 함께, 벤처기업 스스로의 기회에 대한 끝없는 도전과,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좌우된다. 더욱이 자산가치의 증식에만 매달리거나, 시류에 편승하여 코스닥에서 한탕하는데 그친다면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으며 벤처 거품론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수요자가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시장을 개척해나가 매출 증대를 통한 영업이익의 지속적인 성장에서 승부를 찾는 투철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MS사의 빌게이츠, 일본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사장의 경우에서 보듯이, 정보통신 시장에서의 1위를 지키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결국은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투자자의 믿음을 계속 지켜 자산가치의 무한대 상승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미국 나스닥 시장은 최근 주가지수 5000을 돌파해냈으며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도 불과 3년만에 300 돌파 직전에 와 있다. 버블논쟁에도 불구하고 팔목할 만한 성장세임에 틀림없다.

96년 인터넷 엑스포로 국내에 인터넷이 소개된 이후 만 4년만에 인터넷 이용자가 1000만을 넘고, 금년 말에는 2천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양적인 팽창이 질적인 발전으로 연결되어 인터넷 비즈니스의 기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제 겨우 불을 당긴 시장에너지가 사그러들지 않도록 건전한 벤처문화를 형성하고, 건실한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이 계속 늘어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